



또 하나의 출발

서울 스테이크 부장 제2보좌
서 희 철

우리는 누구나 생활속에서 한 가지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다른 목표로 향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목표를 넘어서 다음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경험을 되풀이 합니다. 또한 우리의 경험 세계는 부분적인 관계에서 더 넓은 전체의 관계로 확대되어 갑니다. 이것이 종교적 인생의 출발입니다.

종교의 본질은 가치의 갈구요, 이러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에 의식적으로 의존하는 일이며, 이러한 힘에 의존해서 그 가치를 실현시키려는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교가 인간 생활에 창조적 잠재성을 부여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은 절대적 당신과의 만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인격의 전체성을 인식하지 않고 현미경적인 시선으로 인간 행동은 원자적인 부분의 결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행동 이해에 유용한 기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움직이고 활동하는 전체 인격의 부분적인 단편만을 말하는 개념에 불과합니다.

현대 과학은 전문화 되어져서 새로운 지식이 점점 많아지는데 반해 무엇이든지 일반화 하려는 철학의 경향은 아는 것을 점점 모르는 세계로 몰아 갑니다.

오늘 날의 과학 철학은 우주적인 연속체인 인간성과 초경험적인 실재를 알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종교는 인간이 생각하는 관념 중에서는 가장 광범한 관념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혼자서는 온전한 자아가 될 수 없으며 다른 자아와의 관계에서만 온전한 자아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인격성은 타자와의 상호관계

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도덕적, 영적인 가르침을 이론이 아닌 사실로 받아들여 내면 생활에 자극체로 수용할 때 우리 인격이 신앙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새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출발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이어져 창조의 보람된 작업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새로운 발견이요, 재 구조 작업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또한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원리요 선택의 원리며 능력의 원리인 자유 의지에서 출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셉 스미스는 “예지는 예지와 결합하며 지혜는 지혜를 받아들이며 진리는 진리를 품으며...(교성 88:40)”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재 발견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재 형성화가 진리를 받아들여 질때 우리는 힘차게 세상에 도전하며 정당한 것에 대한 다른 사람의 간증을 긍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간증의 실재를 생활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니일 3:7)라는 니파이의 말씀이 우리의 철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로인하여 새로운 인격의 탄생, 새로운 관계의 성립, 새로운 생활의 시작, 새로운 가능성에의 도전, 새로운 질서의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노력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실 것을 기원합니다. 아멘. *